

탈 비행 청소년의 비행정체성에 대한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의 변인 비교

김경숙* · 남현우**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 탈비행 과정에서 비행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데 있었다. 낙인이론은 전통적인 비행이론에서 근거하였고 정체성이론은 최근 탈비행에서 주목되는 이론으로 본 연구에서 탈비행은 비행정체성의 변화임을 전제로 하였다.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은 낙인변인(타인의식, 타인평가, 징계경험)과 정체성변인(선한자아, 자기평가) 간 연계성으로 구성하였고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 3,449명에 대한 4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은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을 적용한 탈비행·비행지속 집단별 간접효과를 검증하였고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탈비행·비행지속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은 전체집단, 탈비행 및 비행지속집단에 모두 적합모형임을 확인하였고 탈비행·비행지속 집단별로 각각 선한자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탈비행·비행지속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에서는 타인평가에서 선한자아에 이르는 하나의 경로계수가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을 유의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행정체성의 변화과정에서 낙인변인들 보다 선한자아(정체성변인)가 탈비행에 미치는 우세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탈비행 촉진을 위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낙인방지를 강조하기 보다 선한양심을 가진 선한자아를 강조하는 품성계발 및 긍정적 정체성향상 전략이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탈비행, 비행정체성 변화모형, 정체성변인, 낙인변인, 경로계수 차이 검정

*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제1저자

**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교신저자, namhw@sch.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탈비행(desistance from crime)은 비행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0년대 초부터 새롭게 주목받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전통적 비행이론이 사람들은 왜 비행을 시작하고 계속하는가의 문제였다면, 탈비행이론은 왜 똑같이 비행을 하였으나 어떤 청소년들은 비행에서 벗어나 탈비행에 이르고 어떤 청소년들은 여전히 비행을 지속하는가에 대한 이해이다. 과거에는 비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비행의 시작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준다는 논리였으나, 점차 비행시작변인과 탈비행변인이 다를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면서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탈비행 설명이론들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탈비행 관련변인들을 둘러싼 명쾌한 결론은 내려지지 못한 채 다양한 검증들이 시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비행연구는 기존 비행연구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불가분 비행이론과 이론적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탈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비행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비행을 설명하는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의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다. 낙인이론은 타인의 관점에 의해 부여된 불명예스런 낙인이 낙인된 개인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낙인이론은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축적된 낙인연구가 부족해 경험적 지지를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낙인에 의한 행동결과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 때문이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탈비행과 비행지속 간 변이차이를 낙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입증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다(Asencio & Burke, 2011, p. 163).

탈비행의 개인차에 대한 낙인이론의 불완전한 설명력을 해결하기 위해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를 낙인과 행동결과 간에 도입하였다. ‘반영된 평가’란 타인의 직접적인 낙인자체 보다는 타인에게 낙인찍혔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판단한 후에 자신을 규정한다고 보아 이 과정을 자아의 ‘반영된 평가’라 하였다(Kinch, 1963;

Felson, 1985; Matsueda, 1992; 이성식, 2007). 유사한 맥락으로 이성식(2007)은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비공식집단으로 부터의 낙인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하여 타인을 의식하는 감정이 공식적 낙인보다 비행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낙인과 행동결과 간에 ‘반영된 평가’의 개입만으로는 총변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과들(Bartusch & Matsueda, 1996; Heimer & Matsueda, 1994; Matsueda & Heimer, 1997)에 따라 정체성이론에 주목한다(Asencio & Burke, 2011; Cullen & Gendreau, 2000). 최근 Asencio와 Burke(2011)의 연구는 낙인이 행동결과에 미치는 효과에서 보이는 개인차를 낙인이론보다 정체성이론이 더욱 정교하게 설명한다고 주장 하여 정체성이론에 더욱 비중을 실었다. 정체성이론(Paternoster & Bushway, 2009)은 비행자들이 지니고 있는 작업정체성(working identity)의 변화인데 비행자(persisters from crime)에서 탈비행자(desisters from crime)로의 정체성 변화이다. 즉,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현행 탈비행은 타자와의 상호작용관계 시 발생하는 반영된 평가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낙인관점과 미래에 원하는 자아(possible self)로 가고자하는 비행자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정체성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행자들이 자신 스스로를 비행자로 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비행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철학적 관점(Cullen & Gendreau, 2000)에 입각하여 비행정체성의 변화과정 모형을 다루었고 적합한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정체성이론의 효과성을 검증하려고 한다. 낙인이론은 주위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비행행동에 연관있는지를 다룬 대표적인 상호작용이론이며, 정체성이론은 개인의 인지적, 감정적 내적능력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룬 대표적인 인지이론이다. 특히 이 연구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인 낙인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하게 보는 선한자아의 효과에 주목하며,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을 비교하여 탈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의 우월성을 다루려고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우선, 탈비행과 비행지속집단 간 차이를 가장 설득력있게 설명하리라 기대되는 낙인변인(타인의식, 타인평가, 징계경험)과 정체성변인(선한자아, 자기평가)들을 포함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모형에 포함

된 낙인변인과 정체성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탈비행을 예측하는 유력한 변인은 무엇인지, 탈비행과 비행지속을 구별하는 중요한 경로계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본 연구는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을 활용하여 비행에서 탈비행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주목해야할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탈비행론의 핵심적인 질문인 ‘왜 비행을 지속하고 왜 비행을 멈추는가?’를 낙인변인들과 정체성변인들을 적용하여 ‘비록 낙인은 되었어도 탈비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하면서도 검증되지 못한 질문에 실증적인 답변을 하려고 한다. 더욱이 이 답변은 낙인 후 결과행동에 미치는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종단자료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정책기반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탈비행의 이해: 무엇을 실제적 탈비행으로 보는가?

1) 일반적인 탈비행이론

2000년대 초까지도 어떻게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탈비행이론들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인지심리학적 인지이론들로 주로 비행 이론으로부터 빌려온 이론들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탈비행을 비행 원인의 역으로 설명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독자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Sampson과 Laub(1993)은 기존의 비행이론을 기초로 고유의 탈비행이론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성숙과 나이듦, 생애과정모델, 합리적 선택모델, 사회학습모델 등 다섯 가지 탈비행 경향들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성숙과 나이듦은 신체적, 정신적인 성숙이 탈비행을 이룩한다는 입장이며, 발달모델은 생애과정지속형과 청소년제한형

등의 청소년발달시기에 따라 탈비행의 원인이 달라진다고 하여 이미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생애과정모델은 인생의 궤도를 바꿀만한 중요한 인생사건을 탈비행의 요인으로 보는 견해이며 합리적 선택모델은 행위자가 비행을 포기하려고 결정하는 선택을 탈비행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습모델은 모델링이나 강화의 개념을 각각의 이론에 적용해서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좋은 친구와의 유대(사회통제이론)는 모델링이 적용되어 탈비행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탈비행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비행은 다양한 이론들과 혼재된 개념들로 인해 명료화에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그중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탈비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조작할 것인가이다.

2) 탈비행이론의 실제적 의미

탈비행의 이론적 정의는 비행을 중단하는 것이며 더 나아간 비행행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정의내리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고비행율의 비행자라도 후속비행에 관여하기 전 틈새에 휴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비행과 비행 사이의 휴식기(완화기)와 실제의 탈비행을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Bushway, Piquero, Broidy, Couffman & Mazerolle, 2001; Maruna & LeBel, 2003). Farrington(1986)은 심지어 5년 내지 10년간 비행을 행하지 않았어도 비행 종결을 보장하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탈비행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비행으로부터의 회복을 인지할 수 있다면 실제적인 탈비행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때의 실제적인 탈비행은 동일한 기간이라도 다른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규명될 것이다.

Lemert(1948)의 양극개념(two polarized phrases)은 탈비행을 초기비행의 원인에서 찾으려했던 병인학적 논란을 잠재우고 실제적 탈비행을 정의하는데 매우 가치있는 유산으로 조명되고 있다. Lemert는 비행을 일차적 비행(primary deviation)과 이차적 비행(secondary deviation)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일차적 비행은 처음으로 장난삼아 하는 연애편지처럼 비행을 실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이차적 비행은 개인의 '나'의 일부와 일체화하는 비행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행경력은 정체성의 형성시기에 축적되고 자신의 비행과 일관되게 자기를 이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차적 비행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지만(예, 알콜리즘의 경우 사랑하는 이의 죽음, 사업 경쟁의 긴장, 가족역할 혼란, 열등감 등) 이차적 비행은 비행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발생한다(예,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술에 취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듣는 자기 정의들, 죄책감 등 때문에 알콜을 계속 탐닉). 강조점은 일차적 비행자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조화하면서 이차적 비행자로 전락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Lemert의 양극개념은 탈비행 단계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어도 일차적 탈비행(primary desistance)과 이차적 탈비행(secondary desistance) 두 단계로 탈비행을 정의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일차적 탈비행은 비행경력에서 비행이 없거나 비행이 완화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비행자가 셀 수 없이 많은 휴지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일차적 탈비행은 이론적 관심이 적을 것이다.

반면, 이차적 탈비행은 비행을 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된 사람'의 정체성이나 역할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단지 비행의 중단이 아닌 현재의 혼란스런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로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일차적 탈비행과 이차적 탈비행의 구분은 탈비행 경로와 요인을 밝히는 중요한 서막을 열어주었다.

2.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 비행에서 탈비행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두 가지 관점

1)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Cooley(1902)의 자아를 바라보는 관점(looking glass self)과 Mead(1934)의 반영된 자아(The reflexed self)개념에서 개인은 타인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보며 이러한 관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대표자인 Lemert(1951)는 이후에 개인의 정체성변화가 요구되는 지속적인 탈비행(이차적 탈비행)에 성공하려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탈비행을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낙인이론은 사회적 반응인 낙인이 내재화되고 일단 이런 비행적인(혹은 탈비행적인)낙인이 적용되면 타인들로부터 일관된 재반응을 계속 이끌어냄으로써 스스로 (탈)비행을 지속한다(Becker, 1963)고 주장하였다. 많은 비행자들

이 비행의 완화기간(일차적 탈비행) 동안에 ‘회복되었다’라고 낙인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이차적 탈비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즉, 탈비행하는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타인에 의해 재인지되고 탈비행자에게 반영되는 탈낙인(delabeling)과정이 이루어질 때 탈비행은 더욱 수월하게 달성된다. 이와 같이 낙인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결합하여 비행 및 탈비행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발달해왔다.

초기 낙인이론은 낙인의 비행에의 영향력을 우려하여 사법제도의 공식처벌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낙인이론의 단순한 기제는 경험적으로 지지받지 못하였고 인기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낙인이론은 단순히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적용된 낙인대로 순응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제시하는데, 비행자로 낙인되었어도 왜 비행행동에 관여하지 않는지, 비행자의 낙인이 없는데도 왜 비행에 관여하는지를 설명하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Moffitt, 1993; Sampson & Laub, 1993).

수정낙인이론은 낙인과 순응된 행동 사이에 ‘반영된 평가’를 도입하였다. 낙인이론은 직접 순응적인 행동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과정에서 자아(self)에 의해 지각된 ‘반영된 평가’가 자아에 의미있는 피드백을 하며 조화롭게 행동결과로 이끌어 간다는 원리이다(Kinch, 1963).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의 특정 정체성을 내포하는 행동에 대해서 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읽는 역할-취하기(role-taking)를 한다. 타인들의 언어와 행동에 담긴 실제적인 평가(낙인)는 자아(self)에 의해 지각되고(반영된 평가), 반영된 평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감지하면서 상황에 일치하는 행동으로 안내한다는 것이다.

Matsueda(1992)은 청소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 교사, 동료들에 대한 반영된 평가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반영된 평가와 비행 간을 연결한 교차지연방법을 통해 반영된 평가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부모, 교사, 동료로부터의 (자아가 지각한)반영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른 행동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낙인과 자아의 지각인 반영된 평가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공헌하였으나 반영된 평가가 자기평가(self-view)에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은 채 미래과제로 두었다(Asencio & Burke, 2011). 반영된 평가에서 자기평가로 가는 영향력의 검증은 낙인에서 자기평가 간에 나타나는 개인차를 더욱 정교하게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처럼 낙인이론은 비행행동의 개인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비평을 받아왔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반영된 평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낙인과 반영된 평가가 미치는 비행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2) 정체성이론

정체성이론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근거로 성장하였다(Burke & Stets, 2009; Stryker, 1968). 상징주의는 상대방의 상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환하는 것이 사회화이며 또 새로운 사회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라고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가들은 사회나 개인의 자아는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쳐서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정체성이론에서 사용하는 자아(self)의 개념은 개인이 언제나 내포하고 있는 다중정체성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Stryker, 2002; Asencio & Burke, 2011).

정체성이론에서는 정체성을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의 자아에게 적용된 의미 세트로 정의한다(Burke, 1991; Stryker, 1968). 정체성은 범죄자나 약물남용자와 같은 비행정체성 뿐 아니라 교사, 트럭운전수와 같은 역할 정체성을 포함한다. 정체성이론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만약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정체성 간의 불일치나 부조화가 지각된다면 이러한 지각은 발생한 불일치를 없애거나 감할 수 있는 행동으로 유도할 것이다. 즉, 불일치의 상황에서 지각된 자기관련 의미를 변경하려고 행동함으로써 정체성 내에서 자기 의미와 일치하도록 맞춘다. 자신에 대해 정의내린 정체성과 합치되는 지각된 의미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자기-입증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체성은 수동적 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수용자(agents)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이론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초래되는 부조화나 불일치(내재화된 정체성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정체성과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부조화나 불일치에 순응해서 이전과 다른 정체성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주요한 관심을 둔다.

이상 정체성이론의 입장대로라면 비록 공식적으로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갖고 있거나, 타인은 나를 비행청소년으로 볼 것이라는 지각된 낙인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를 비행청소년으로 보지 않는 자기관점의 정체성표준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

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과연 무엇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것인가가 본 연구의 핵심 이슈일 것이다.

3. 비행정체성 변화와 선한자아 : 비행정체성 변화에 유용한 변인은 무엇인가?

앞서 제시한 것처럼 타인관점의 낙인과 이런 낙인이 내재화된 지각된 관점이 자기 관점의 정체성(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로 칭함)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비행정체성의 변화를 다룬 탈비행으로 부터 살펴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탈비행을 이룬 청소년들은 비행정체성을 바꾸는데 성공한 경우이다.

비행정체성의 변화는 정체성이론을 중심으로 두 가지 연구 경향을 보였다. 하나는 사회적, 환경적 상호작용 입장과 다른 하나는 인지적 입장의 정체성이론이다.

첫째, 환경적 상호작용 입장의 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처한 제한된 사회적 환경이 비행정체성을 변화시킨다는 주장이다. Asencio와 Burke(2011)는 수감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약물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비행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교정기관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는 입소된 동료들로 부터의 반영된 평가가 비행자의 비행정체성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개인의 힘이 없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서서히 원래 지녔던 정체성을 변화시켜간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테러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변화 연구들(Arena & Arrigo, 2005, 2006)과 정체성 입증과정 연구(Burke & Stets, 1999)는 정상적인 상호작용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비행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인지적 입장의 정체성 이론은 인지적 요소를 가미해 심리적, 임상적 접근으로 정체성변화를 밝히고 있다. Paternoster와 Bushway(2009)는 비행자들이 갖는 정체성을 작업정체성(working identity)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현재 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행을 저지를 사람이라는 비행정체성이다. 비행자의 이런 정체성은 생활 속에서 불만감을 쌓아가며 특히 현재의 실패가 미래의 실패감으로 이어질 때 불만감을 느낀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 자신을 망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수반하면서 미래에 변

하고 싶은 선망적 자아(possible self)에 대해 생각하고 비로소 비행정체성의 변화과정이 시작된다. 선망적 자아는 미래에 원하는 자아로서 비행자들이 의도적인 자아변화를 이루기 위한 최초의 변화 동기가 될 것이다(Paternoster & Boshway, 2009; 김경숙, 남현우, 2012). Christine(2012)는 반복적 비행지속자의 이야기분석(narrative analysis)에서 탈비행의 성공요인을 ‘선한자아 만들기(making good)’로 설명하였다. ‘선한자아 만들기’란 나쁜자아로 부터 선한자아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비행지속자들의 부정적인 과거경험이 필연적으로는 좋은 선물이 되는 결과로 이끌도록 강력히 연결한다. 즉, 부끄러운 과거를 생산적이고 가치로운 인생의 서막이 되도록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의미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선한자아 만들기’는 변화와 재구성의 방식으로 삶을 재창조하는 의도적인 인지왜곡이라 볼 수 있지만(Maruna, 2001), 한편, 선하게 될 가능성 있는(capable of being good) 자아를 구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남아있는 인생을 재구성된 이야기의 통합적 내용으로 향하게 만드는 치료적 의미가 있다(Christine, 2012; Singer, 2002). 선한자아 만들기는 비행과 탈비행 간을 이분적인 절단(knifing off)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선한자아로 재구성하고 만들어가는(making good) 정체성의 인지적 변화과정으로 규명할 수 있다.

4.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낙인변인인 타인의식, 타인평가, 징계경험과 정체성변인인 선한자아, 자기평가로 구성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에 대한 역동적 구조 관계를 파악하고, 비행·탈비행 집단 간에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Asencio와 Bueke(2011)의 ‘반영된 평가와 자기평가 간 관련 모형’에 기초하였는데 이 연구모형은 반영된 평가를 낙인변인으로, 자기평가는 정체성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비행 정체성 혹은 약물정체성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모형도 Asencio와 Bueke(2011)모형과 같이 낙인변인이 정체성변인으로 향하는 관계성에 징계경험과 선한자아의 매개변인을 추가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 검증 을 통해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을 구별하는 유의한 경로계수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을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청소년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은 적합한가?

둘째,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은 비행지속집단과 탈비행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셋째, 비행지속과 탈비행 집단별로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변인은 무엇인가?

넷째, 비행지속과 탈비행집단 간 비행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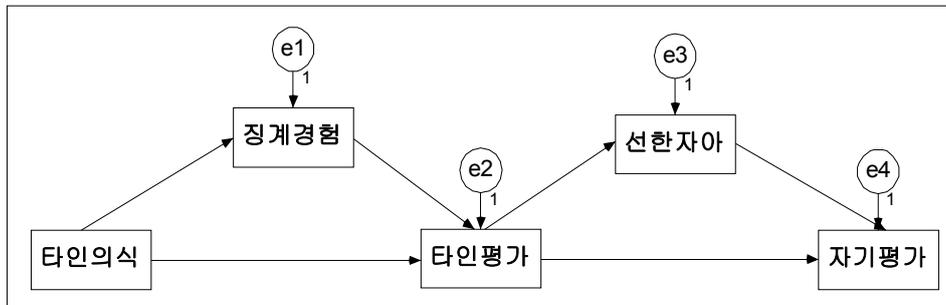


그림 1. 비행정체성 변화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는 전국 청소년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표집된 한국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이다. 이 자료는 전체 3,449명(남; 1,725명, 여; 1,724명)의 청소년이 패널로 선정되어 4차년도까지 3,121명(90.5%)의 비교적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2패널 1차(중2)전체 3,449명과 이들 중 1차(중2)에 비

행을 행한 1,430명을 추출하여 이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1차(중2)에는 비행을 행했으나 2차(중3)부터 4차(고2)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비행을 행하지 않은 탈 비행집단 194명과 1차(중2)부터 4차(고2)까지 비행을 지속적으로 행한 비행지속집단 415명을 선정하였다.

2. 측정변인

1) 탈비행

본 연구에서 비행은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으로 구분한 노성호(2007)연구를 참조하여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폭력, 절도, 금품갈취(뺑뜨기), 협박 등 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8개 문항에 대해 각각 비행여부 문항을 0(비행경험 없음), 1(비행경험 있음)의 이항변수로 만들어 합산하였다. 그리고 다시 비행경험을 0(비행경험 없음)과 1(비행경험 있음, 1점~ 8점까지 분포)의 이항변수로 만들었다.

2) 낙인이론 변인

- ① 타인의식 : 타인의식은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의 문항으로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비난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② 징계경험 : 징계경험은 학교규칙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험여부를 의미한다. ‘비행(범죄)으로 학교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징계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 ③ 타인평가 : 타인평가는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추어본 자아의 반영된 평가로서 자아의 지각된 관점을 의미한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등 2개 문항이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타인평가는 이 두 문항의 평균값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는 .885이다.

3) 정체성이론 변인

- ① 선한자아 : 선한자아는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나 자신이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2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선한자아는 이 두 문항의 평균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믿는 정체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선한자아의 내적 신뢰도는 .663이다
- ② 자기평가: 자기평가는 스스로에 대해 정의 내린 자기관점(self-view)의 비행정체감을 의미한다.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등 2개 문항이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평가는 이 두 문항의 평균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비행정체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는 .779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 AMOS 7.0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탈비행 비행정체성 변화를 모형화하기 위해 1차 전체 자료에 대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1차~4차에 이르는 4년 간 탈비행과 비행지속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에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각각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은 두 집단별 간접효과를 보이는 매개변인이 상이한지를 검증하였다.

셋째, 두 집단 간에 경로계수비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다집단비교 분석을 하였다. 다집단비교 분석에서는 적어도 두 단계 순차적 검증을 통과해야 탈비행과 비행지속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간에 인과관계 구조가 두 집단에 모두 동일함을 확인하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이 확보된 후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검증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탈비행·비행지속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 차이검증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탈비행과 비행지속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탈비행에 유력한 변인을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이를 것이다.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집단별 적합도 평가는 χ^2 , p, TLI, CFI, RMSEA 등 통계지수를 사용하였다. χ^2 은 통계량에 과도하게 민감한 경향이 있으므로 χ^2/df 를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설명된 전체변량에 근거한 CFI와 오차공분산의 합에 근거한 RMSEA를 활용하여 판단하였다. TLI와 CFI는 .90보다 클 경우, RMSEA는 .08보다 적을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Hu & Bentler, 1999).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1차(중2)전체, 1차~4차의 탈비행 및 비행지속집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탈비행집단과 비행지속집단의 사례수

탈비행집단은 1차에서 비행을 행한 1,430명 중에서 2차에 비행을 행하지 않은 525명을 추출하였고, 그중 3차에도 비행을 행하지 않은 294명, 그중 4차에도 비행을 행하지 않은 194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표 1). 비행지속집단은 1차에서 비행을 행한 1,430명 중에서 2차에 비행을 행한 797명을 추출하였고, 그중 3차에도 비행을 행한 535명, 그중 4차에도 비행을 행한 415명으로 선정되었다(표 2).

표 1

탈비행집단 사례수

	1차	2차	3차	4차
탈비행집단	1,430(O)	525(X)	294(X)	194(X)
그 외(결측)		905	231	100
총인원	3,449	1430	525	294

(비행을 행함:O, 비행을 행하지 않음:X)

표 2
비행지속집단 사례수

	1차	2차	3차	4차
비행지속집단	1,430(○)	797(○)	535(○)	415(○)
그 외(결측)		633	262	120
총인원		1,430	797	535

(비행을 행함: ○, 비행을 행하지 않음: X)

2) 집단별 기술통계치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집단별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선한자아의 평균이 탈비행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그 외 변인들의 평균은 비행지속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
타인의식, 타인평가, 징계경험, 선한자아, 자기평가의 기술통계치

	전체		탈비행집단		비행지속집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타인의식	3.17	1.11	3.05	.75	3.09	.66
징계경험	1.33	.83	1.82	.50	2.23	.63
타인평가	1.69	.80	1.65	.52	2.13	.70
선한자아	3.14	.76	3.30	.55	3.27	.56
자기평가	1.90	.81	1.82	.50	2.23	.62
인원(n)	3,449		194		415	

2. 전체집단에 대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적합도 검증

전체집단에 대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나($\chi^2=13.56$, $p=.004$, TLI=.990, CFI=.997, RMSEA=.032) 비행 정체성 변화모형이 전체집단에 적합한 모델로 판단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6개의 경로계수 중 징계경험→타인평가, 타인평가→선한자아, 선한자아→자기평가, 타인평가→자기평가 등 4개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중 타인평가→자기평가의 경로계수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표 4
전체집단의 비행정체성 변화모형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표준화)	S.E	t	p
타인의식 → 징계경험	.00(.00)	.01	.20	.838
타인의식 → 타인평가	.03(.04)	.01	2.66	.008
징계경험 → 타인평가	.40(.42)	.02	27.03	.000***
타인평가 → 선한자아	-.16(-.17)	.02	-10.09	.000***
선한자아 → 자기평가	-.11(-.11)	.01	- 9.19	.000***
타인평가 → 자기평가	.85(.84)	.03	29.87	.000***

* $p<.05$, ** $p<.01$, *** $p<.001$

3. 탈비행·비행지속 집단별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적합도검증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이 전체집단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탈비행과 비행 지속 집단별로 각각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검증결과, 탈비행집단의 적합도($\chi^2=13.23$, $p=.040$, TLI=.97, CFI=.99, RMSEA=.04)와 비행지속집단의 적합도($\chi^2=21.64$, $p=.001$, TLI=.96, CFI=.99, RMSEA=.05)는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 적합모델로 판단하였다(표 5).

모델의 적합성이 확인되어 집단별 모수치 결과를 살펴보면, 탈비행과 비행지속에서 유의미한 경로계수가 동일했으며($\alpha=.05$) 이때 선한자아→자기평가 경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탈비행의 경로계수 수치가 비행지속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표 6).

표 5

탈비행·비행지속 집단별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적합도 검증

	$\chi^2(p)$	χ^2/df	TLI	CFI	RMSEA	95%CI	RMSEA
탈비행	13.23(.040)	2.21	.97	.99	.04	.009-.007	
비행지속	21.64(.001)	3.61	.96	.99	.05	.032-.082	

표 6

탈비행·비행지속 집단별 모수치 결과

경로	비표준화(S.E)		t		p	
	탈	지속	탈	지속	탈	지속
타인의식 → 징계경험	-.069(.04)	-.063(.06)	-1.548	-.983	.122	.326
타인의식 → 타인평가	-.043(.04)	.047(.03)	-1.031	1.191	.303	.234
징계경험 → 타인평가	.597(.06)	.534(.03)	8.844	17.654	***	***
타인평가 → 선한자아	-.322(.07)	-.150(.03)	-4.470	-3.850	***	***
선한자아 → 자기평가	-.087(.03)	-.135(.02)	-2.353	-4.588	.019	***
타인평가 → 자기평가	.795(.06)	.771(.03)	11.589	21.292	***	***

* $p < .01$, ** $p < .05$, *** $p < .001$

4. 탈비행·비행지속 집단별 간접효과 검증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별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간접효과 부트랩 분석결과와 95% 편향수정된 신뢰구간값을 통해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았다.

우선 탈비행집단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첫 번째, 타인의식→타인평가 경로에서 간접효과는 .041로 95% 편향수정된 신뢰구간값의 상한값 .01, 하한값 -.09로 영가설을 만족하는 0의 지점을 통과하였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beta = .043$), 총효과($\beta = -.085$)도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 타인평가→자기평가 경로의 간접효과는 .028로 95% 편향수정된 신뢰구간값의 상한값 .07, 하한값 .01로 영가설을 만족하는 0의 지점을 통과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beta = .795$)와 총효과($\beta = .823$)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

은 탈비행집단에서 타인평가에서 선한자이를 경유하여 자기평가에 미친 영향에서 선한자이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 비행지속집단에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8과 같다. 첫 번째, 타인의식→타인평가 경로에서 간접효과는 -.033로 95% 편향수정된 신뢰구간값의 상한값 .04, 하한값 -.08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beta=.047$)와 총효과($\beta=.013$)도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 타인평가→자기평가 경로의 간접효과는 .020은 95% 편향수정된 신뢰구간값의 상한값 .03, 하한값 .01로 영가설을 만족하는 지점인 0을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beta=.771$)와 총효과($\beta=.779$)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타인평가→자기평가 경로에서 선한자이의 부분매개효과를 보임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탈비행집단과 비행지속집단에서 동일하게 타인평가→자기평가 경로에서만 선한자이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표 7

탈비행집단에 대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효과분석 부트랩 검증

경로	비표준화(95%b-c신뢰구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타인의식→징계경험	-.069 (-.14, .04)	.000	-.069 (-.14, .04)
타인의식→타인평가	-.043 (-.12, .04)	-.041 (-.09, .01)	-.085 (-.19, .01)
징계경험→타인평가	.597***(.47, .71)***	.000	.597***(.47, .71)***
타인평가→선한자이	-.322***(-.47,-.19)***	.000	-.322***(-.47,-.19)***
선한자이→자기평가	-.087***(-.15,-.01)***	.000	-.087***(-.15,-.01)***
타인평가→자기평가	.795***(.64, .92)***	.028***(.01, .07)***	.823***(.65, .94)***

* $p<.05$, ** $p<.01$, *** $p<.001$

표 8

비행지속집단에 대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효과분석 부트랩 검증

경로	비표준화(95%b-c신뢰구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타인의식→징계경험	-.063(-.17, .07)	.000	-.063(-.17, .07)
타인의식→타인평가	.047(-.02, .12)	-.033 (-.08, .04)	.013(-.19, .01)
징계경험→타인평가	.534*** (.47, .58)***	.000	.534*** (.47, .58)***
타인평가→선한자아	-.150***(-.23,-.08)***	.000	-.150***(-.23,-.08)***
선한자아→자기평가	-.135***(-.19,-.07)***	.000	-.135***(-.19,-.07)***
타인평가→자기평가	.771*** (.69, .83)***	.020***(.01, .03)***	.791*** (.72, .85)***

* $p < .05$, ** $p < .01$, *** $p < .001$

5. 탈비행 · 비행지속 집단 간 경로계수 검증

1) 탈비행과 비행지속집단 간 다중집단비교 분석

앞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은 탈비행집단과 비행지속집단에서 적합한 모델로 판단되었으므로 두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검증을 위한 선행단계로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검증결과, 표 9와 같이 비제한모형인 자유모형은 적합하게 나타나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기본 구조(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chi^2 = 13.230$, RMSEA .045).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은 두 집단 간에 어떠한 동치제약도 가하지 않은 【자유모형】과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계수가 두 집단 간에 같다고 제약한 【모형1】과의 χ^2 차이 검증 결과로 얻어진다. 검증결과, 【모형1】에서 χ^2 은 22.154이었고 【자유모형】과의 $\Delta\chi^2$ 은 8.924(df=6)로서 $\chi^2(\alpha=.05, df=6)$ 값 12.59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탈비행과 비행지속집단 두 집단 간에 모형 안의 모든 경로계수의 모수추정치들 같다고 제약하였을 때, 제약을 가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유의미할 만큼 나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형 2】와 【모형 3】은

【자유모형】과의 $\Delta\chi^2$ 비교 결과 유의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비행 집단과 비행지속집단 간에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인과적 구조관계 뿐 아니라 모형내의 경로계수까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별로 다중집단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문수백, 2009).

표 9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χ^2	DF	CFI	RMSEA	$\Delta\chi^2/DF$	$\Delta\chi^2$ Sig Dif
【자유모형】 Unconstrained	13.230	6	.993	.045		
【모형1】:측정가중치 Structural weights (λ 제약)	22.154	12	.991	.037	8.924/6	no sig. (p=.178)
【모형2】:구조 절편 Structural intercept	144.563	17	.884	.111	22.309/5	sig. (p=.000)
【모형3】:측정 잔차 Structural residuals	22.567	23	.842	.120	78.004/6	sig. (p=.000)
$\alpha=.05$ 일 때 $df=5$, $\chi^2=11.07$, $df=6$, $\chi^2=15.51$						

2)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 개별경로계수 비교 검증

앞서 측정동일성까지 확보하였으므로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 어떤 경로에서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계수 비교 검증을 하였다. 우선 경로계수의 임계치 차이(Critical Ratio Difference)가 1.96보다 커야 하는데, 타인평가와 선한자아 간의 경로의 차이가 2.09으로 임계치 1.96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표 10).

또한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에 개별 경로계수에 대한 $\Delta\chi^2$ 비교 검증을 하였다. 이것은 각각의 경로에 대한 등가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추정하여 등가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과 비교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탈비행집단에서 타인의식→징계경험 경로와 비행지속집단의 타인의식→징계경험 경로를 동일하다고 제약한 모형과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과의 비교로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경로계수 $\Delta\chi^2$ 비교 검증 결과, 타인평가→선한자아 경로 간의 $\Delta\chi^2$ 가

4.36으로 임계치 3.84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경로들의 차이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11). 결론적으로 탈비행집단은 비행지속집단 보다 타인 평가→선한자아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고 강하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경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결과

경로	비표준화(S.E)		Critical Ratio Difference
	탈비행	비행지속	
타인의식 → 징계경험	-.069 (.045)	-.063(.064)	- .081(no)
타인의식 → 타인평가	-.043 (.042)	.046(.039)	-1.565(no)
징계경험 → 타인평가	.597***(.067)	.534***(.030)	- .850(no)
타인평가 → 선한자아	-.322***(.072)	-.150***(.039)	2.096(yes)
선한자아 → 자기평가	-.087***(.037)	-.135***(.029)	-1.027(no)
타인평가 → 자기평가	.795***(.069)	.771***(.036)	.310(no)

임계치 = 1.96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 경로계수 $\Delta\chi^2$ 비교 결과

제약된 경로		χ^2	df	$\Delta\chi^2/df$	$\Delta\chi^2$ Sig Dif
비제약	포화모형	13.230	6		
	타인의식→ 징계경험	13.237	7	.007	.935(no)
제약	타인의식→ 타인평가	15.616	7	2.386	.122(no)
	징계경험→ 타인평가	13.952	7	.722	.396(no)
	타인평가→ 선한자아	17.594	7	4.364	.037(yes)
	선한자아→ 자기평가	14.275	7	1.045	.307(no)
	타인평가→ 자기평가	13.325	7	.095	.758(no)

$\alpha = .05$ 일 때 $df=1$, $\chi^2=3.84$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최근까지 탈비행의 예측요인에 관한 입장들은 분분해 왔다. 그중 낙인요인들과 정체성요인들이 탈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경험적 지지를 확보해가는 도중에 있다. 즉, 타인의 낙인이나 타인을 의식하는 반영된 평가들이 탈비행의 주효과라는 선행연구가 있는 반면, 반영된 평가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체성요인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선행연구도 있다. 현재는 낙인이론 단독으로는 탈비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을 비교하거나 두 이론을 상호 보완하여 탈비행 예측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추정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비행과 비행지속 집단 간에 낙인변인과 정체성변인을 모두 고려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탈비행에 더욱 우세한 경로와 변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청소년 탈비행의 추진 동력이 낙인효과에 달렸는지, 아니면 비록 낙인이 되어도 자기를 선하게 여기는 자기 개념이나 정체성효과에 달렸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은 1차(중2)전체집단과 1차에는 비행했으나 2차~4차에 걸쳐 3년간 비행하지 않은 탈비행집단, 그리고 1차~4차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비행을 행한 비행지속집단에 모두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과 탈비행을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비행과 탈비행을 모두 아우르는 비행정체성 변화모형 선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비행정체성(deviant identity), 주체적 주도성(agentive orientation) 및 결혼, 고용(구조적 사건) 등을 결합하였을 때 단 하나 비행정체성만이 탈비행집단과 비행지속집단 간을 유의하게 구별한 Schroeder(2005)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투옥 수감자들의 비행정체성 변화를 검증한 Asencio와 Burke(2011)의 연구는 비교집단이 없었다는 한계는 있으나 반영된 평가에서 자기평가(정체성)로 향한 일방향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여 같은 맥을 이루었다. 따라서 최종변인을 자기평가로 한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적용은 아직은 모호한 탈비행 개념을 정체성변화과정으로 구체화한 시도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비행정체성 변화모형의 낙인변인들과 정체성변인들을 통해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매개효과로 연결된다. 매개효과는 최

중변인 자기평가 산출 과정에서 새로운 경로를 밝혀줌으로써 제3의 다른 변인의 중요성을 발견해 주었다. 탈비행집단이나 비행지속집단에서 모두 타인의식→타인평가 경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타인평가→자기평가 경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제3의 변인인 징계경험, 선한자아 중에 선한자아만이 영향력을 나타냈음을 의미한다. 즉, 선한자아는 탈비행집단이나 비행지속집단에서 타인평가에서 자기평가로 가는 경로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낙인변인과 정체성변인 간 우세성 비교에 앞서, 우선 탈비행집단과 비행지속집단에서 각각 유의한 매개변인인 선한자아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경로계수 차이비교 결과와 함께 선한자아의 중요성을 보완하여 입증한 결과라 판단된다.

세 번째, 탈비행집단과 비행지속집단을 비교한 경로계수 차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탈비행과 비행지속집단에서 동일하게 징계경험→타인평가, 타인평가→선한자아, 선한자아→자기평가, 타인평가→자기평가 등 모두 네 개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그중 선한자아→자기평가 경로만이 유일하게 두 집단을 차별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임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탈비행집단이나 비행지속집단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로는 낙인변인과 정체성변인들을 포함한 여러 경로들이 모두 해당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두 집단 간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낸 유일한 경로는 선한자아와 자기평가로서 정체성변인을 포함한 경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비록 징계경험과 같은 공식적인 낙인 경험이나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라는 지각된 의식이 있더라도 더욱 강력한 것은 스스로를 선한사람이라고 믿는 자기관점의 평가가 있을 때 결국 그들은 비행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상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은 모두 상징적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였으나 뻗어나간 가지는 달랐다. 즉, 수정낙인이론을 포함한 낙인이론의 한 부류와 인지이론과 결합한 정체성이론의 한 부류로 발달하고 있다. 낙인이론은 원래 비행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었으나 지지받지 못하다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탈비행이론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체성이론은 대표적인 탈비행이론으로 간주될 만큼 경험적 지지를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적연구를 통한 탈비행 이론적 구축은 매우 미흡하다. 본 연구는 탈비행 달성에 기여하는 경로 발견에 관심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탈비행과 비행지속 두 개의 비

교집단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탈비행에 더욱 유력한 예측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중2~고2 발달시기에 호기심으로 인한 비행행동에 가담했던 청소년들이 일차적 탈비행(비행을 행하지 않고 근신하는 시기)동안에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비행을 이미 행했던 청소년들에게는 재범이라는 낙인방지를 강조하는 부정적 전략보다 선한양심을 가진 자아를 강조하는 정체성향상의 탈비행 전략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낙인으로 인한 미래의 절망감을 재상기하는 것 보다 선한자아에 주력해서 긍정적 자아감을 향상시키는 품성개발프로그램 제공과 멘토로부터의 선한자아를 확인받는 선한자아의 이미지 증진 및 긍정적 자아로의 변환을 모색하는 것이 이차적 탈비행을 달성하는 치료 전략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낙인변인 세 개와 정체성변인 두 개를 구성하였지만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탈비행 예측경로 및 변인들 간의 적합모형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타인의식과 징계경험은 한개 문항, 그 외변인은 두개 문항으로 구성된 점이다. 이는 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변인 선정의 한계점도 있었으나, 변인에 포함한 문항수를 증가하여 변인의 내용타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후속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소년 탈비행의 경로탐색과 모형개발이 이루어지고 탈비행의 설명적 이론 틀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숙, 남현우 (2012). 중기청소년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예측요인 탐색.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3(4), 131-157.
- 노성호 (2007).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형사정책연구**, 18(4), 243-275.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이성식 (2007). 청소년비행과 비공식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 연구**, 18(3), 1105-1127.
- Arena, M. P., & Arrigo, B. A. (2005). Social psychology, terrorism, and identity: A preliminary re-examination of theory, culture, self, and societ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4(23), 485-506.
- Arena, M. P., & Arrigo, B. A. (2006). *The terrorist identity: Explaining the terrorist threat*. New York: NYU Press.
- Asencio, E. K., & Burke, P. J. (2011). Does incarceration change the criminal identity? A synthesis of the labeling and identity theory perspectives on identity change. *Sociological Perspectives*, 54(2), 163-182.
- Bartusch, D. J., & Matsueda, R. L. (1996). Gender, reflected appraisals, and labeling: A cross-group test of an interactionist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75(1), 145-176.
- Becker, H.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 Burke, P. J. (1991). Identity processes and social 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6), 836-849.
- Burke, P. J., & Stets, J. (1999). Trust and commitment through self-verific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4), 277-290.
- Burke, P. J., & Stets, J. (2009). *Identity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shway, S. D., Piquero, A., Broidy, L., Cauffman, E., & Mazerolle, P. (2001). An empirical framework for studying desistance as a process. *Criminology*, 39, 491-515.

- Christine, F. (2012). making sense, making good, or making meaning? Cognitive distortions as targets of change in offender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6(3), 465-482.
- Cullen, F. T., & Gendreau, P. (2000). Assessing correctional rehabilitation: Policy, practice, and prospects. In J. Horney (Ed.), *Criminal justice 2000: Volume 3-polices, practices, and decision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p.109-175).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 Lemert, E. (1948). Some aspects of a general theory of sociopathic behavior. Proceedings of the Pacific Sociological Society. *Research Studies, State College of Washington*, 16, 23-29.
-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A systemic approach to the theory of sociopathic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Farrington, D. P. (1986). Age and crime. In N. Morris, & M. Tonry (Eds.), *Crime and Justice*, vol. 7 (pp.189-250).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Felson, R. B. (1985). The (somewhat) socialself: How others affect self-appraisals. In J. M. Suls (Ed.), *The self in social perspec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4 (pp.1-2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eimer, K., & Matsueda, R. (1994). Role-taking, role commitment, and delinquency: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2), 365-90.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inch, J. W. (1963). A formalized theory of the self-concep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2), 481-86.
- Maruna, S. (2001). *Making good: How ex-convicts reform and rebuild their l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tsueda, R. 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577-611.

- Matsueda, R. L., & Heimer, K. (1997).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of role: Transitions, role-commitments, and delinquency. In T. Thornberry (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7 (pp.163-213).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Maruna, S., & LeBel, T. P. (2003). Welcome home?: Examining the reentry court concept from a strengths based perspective. *Western Criminology Review*, 4, 91-107.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6), 674-701.
- Paternoster, R., & Bushway, S. (2009). Desistance and the 'feared self': Toward an identity theory of criminal desista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99(4), 0091-4169.
- Sampson, R., & Laub, J.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roeder, R. D. (2005). *Stuck in a hurt locker: Toward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on desistance proces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USA.
- Singer, J. B. (2002). Living in the amber cloud: A life story analysis of a heroin addict. In D. P. McAdams, R. Josselson, & A. Lieblich (Eds.), *Turns in the road: Narrative studies of lives in transition* (2nd ed., pp.253-27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ryker, S. (1968). Identity salience and role performance: The Relevance of symbolic interaction theory for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3), 558-564.
- Stryker, S. (2002). *Symbolic interactionism: A social structural version*. Caldwell, NJ: The Blackburn Press.

ABSTRACT

A comparison of the variables between labeling theory and identity theory which influence the change process of delinquency identity

Kim, Kyungsook* · Nam, Hunwoo**

The aim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plore the relative effectiveness between the variables of labeling theory and identity theory. The delinquency identity change model (DCM) was connected with relationships between labeling variables (others consciousness, others appraisals, punishment experiences) and labeling variables (good self, self appraisals). This approach to DCM was matched to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tudy (KYPS). Utilizing a sample of 3,449 eighth-graders who were followed over the course of 4 years, DCM was used to test the indirect effect on the desistance group and the persistence group. A Multiple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path between the desistance group and the persistence group.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re was goodness of fit for the DCM to the full group, the desistance group and the persistence group a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good self was significant on the desistance group and the persistence group. Additionally, the only one path between others appraisals and good self was discriminated significantly from the desistance group and the persistence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ood self (identity theory) proved to be a more powerful influence on DCM than labeling variables.

Key Words : desistance, delinquency identity change model, identity variables, labeling theory, path difference test

투고일 : 2014. 3. 10, 심사일 : 2014. 5. 9, 심사완료일 : 2014. 5. 15

* Asan Youth Counselling Welfare Center

** Soochunhyang University